

<INTERVIEW : 김 수동 상공자원부 석유화학국장>

“ 석유화학에서 첨단화학으로...”

한국 화학산업이 기술과 자본, 정보력으로 무장된 2000년 무한경쟁시대에 도전한다. 무엇보다 정부와 기업간 살아있는 유기적 관계를 통해서만이 현실화 될 수 있는 한국 화학산업의 미래는 정부 정책 결정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과감한 결단을 필요로 하고 있다.

구습에서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정책 결정과 발전적이고 과감한 기업의 경영이 어우러져 국제장벽을 뛰어 넘어 주기를 관련업계는 물론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다. 국제경쟁력은 말뿐이 아닌 실현 가능한 정책입안과 그것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기업의 의지가 있을 때만 가능하다.

정책 결정을 주관하는 김 수동 상공자원부 석유화학 국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한국 화학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본다.

『21세기 무한 경쟁 시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할 수 있도록 전략적품목을 적극 개발,국가 산업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한국 화학산업 정책의 실질적인 최종 결정권자인 김 수동 상공 자원부 석유화학 국장(49)은 최근 급변하고 있는 세계 화학산업의 새로운 구도와 관련, 『한국 화학산업이 과도기를 벗어나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지난 3월 주 영국대사관 상무관으로서의 오랜 외유를 마치고 상공부 화학산업 정책 책임자로 새로 부임한 김국장은 취임 일성을 화학산업의 인식 전환을 통한 산업열기 고조에 두는 등 산업 체질 개선에 특별한 관심을 나타냈다.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전략적 품목을 집중 육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실 한부분을 21세기 전략품목 진열장으로 꾸며놓을 만큼 독특한 방식의 현실정책을 추구해온 김국장은 이상비대현상에 허덕이는 석유화학보다는 다소의 경쟁우위를 점하고 있는 정밀화학부문에 승부를 걸겠다는 소신을 거듭 밝혔다.

특히 김국장은 석유화학산업과 관련,『이상 비대로 몸살을 앓고 있는 것이 사실이긴 하지만 업계가 자율적 협력을 통해 산적해진 문제들을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고 자율적인 대책을 유도해 문제를 해결해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

또, 최근 석유화학산업계의 가장 큰 관심사인 「NCC 및 폴리올레핀 5%감산」문제에 대해서는『현재로선 언급할 단계가 아니다』며 답변을 유보, 감산과 폴리머 가격인상 문제가 「뜨거운 감자」임을 입증했다.

● 화학산업의 기본정책 방향은?

◆ 일반적으로 석유와 화학은 경쟁력 열위분야로 인식되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인식전환을 통해 정부정책 결정과정에서 뒤쳐져온 석유와 화학산업 열기를 고조시키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특히 이상비대해진 석유화학에서 경쟁력이 강한 정밀화학 분야로 정책방향을 옮겨 전략화시킬 수 있도록 선도적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 업무실 공간을 이용하여 유망 화학제품을 진열해 놓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가 눈에 띄는데...

◆ 외국 근무기간 동안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환경 변화를 직접 체험한 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환경의 변화를 정책 결정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실무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 국내 화학산업계가 과연 국제환경 변화에 능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 국내 기업들도 과거와는 경영환경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그러한 여러가지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냉철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 현재의 국내화학산업을 한마디로 평가 한다면?

◆ 석유화학은 공급과잉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급선무이고, 정밀화학은 전략적 유망부문이긴 하나

아직까지 유치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밀화학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석유화학의 정상화가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 감산을 통한 가격인상은 자율적 차원에서 바람직한 것일 수도 있지만 문제는 자기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태에서 행해지는 어떤 방법도 설득력이 없다는 사실을 업계가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일단 국제장벽이 무너진 현실에선 국제가격 상승이 국내가격 상승을 불러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업계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국제화에 대한 만반의 준비 태세가 갖춰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UR·GR·TR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얽매이거나 구습에서 탈피하지 못한다면 국제 경쟁에서 낙오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 NCC 빛 폴리에틸렌의 5%감산 합의에 대한 정부의 공식 입장은?

◆ 그문제는 대단히 민감한 사안으로 현재로서는 뭐라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 석유화학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한 정밀화학에 승부를 걸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는데 구체적인 육성방안은?

◆ 21세기 유망산업으로 생명공학과 함께 정밀화학을 첫번째로 꼽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밀화학분야의 문제점과 발전과제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생각입니다.

산업계, 연구소, 학계, 정책 담당자가 한자리에 모여 실질적인 대안마련에 나설 것이며 결정된 대안에 대해서는 R&D를 중심으로 한 간접지원 방식을 일관성있게 추진해나갈 생각입니다.

● 다국적 기업들이 고기술과 자본력으로 국내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과의 관계정립 등 대처방안은?

◆ 다국적 기업과는 피할 수 없는 일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개발초기 단계에서 다국적 기업이 덤핑으로 국내산업의 존립기반을 해칠 우려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관련 제도적 방안으로 무역위원회의 기능이 대폭 보강될 수 있도록 상공부 차원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 구체적으로 제도개선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 섬유화학국의 소관사항은 아니지만, 한마디로 반덤핑제소자체가 용이하고 구제조치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현행제도를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현재 반덤핑제도상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 반덤핑과 관련해서는 재무부와 상공부간의 이원화문제라든지 독립성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선진국형 산업피해 구제로 옮겨가고 있긴 하지만 상공부와 재무부가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해 UR에 맞게 정책 방향을 재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경쟁력 열위산업의 구조조정 문제와 관련, 열위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막고 있어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이 더욱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

◆ 중소기업 고유업종 문제는 경제논리나 타당성만을 가지고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으로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치적 논리가 존재하고 있어 단시일내의 전면해제는 상당히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단기적으로 고유업종을 축소해 가면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립이 가능할 때 전면 폐기해야 할 것입니다.

● 앞으로 한국 화학산업의 성패는 중국시장으로의 진출여부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국시장 개척문제가 매우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협력방안을 비롯한 정부측 대안은 무엇인지...

◆ 중국은 노동력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으며 반대로 우리나라는 원료와 기술, 자본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적 특성을 살려 원료, 기술, 자본으로 진출한 다음 값싼 중국 노동력을 이용한 분업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최소한의 선도적 기능만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 국내 화학산업은 해외시장에서까지 과당경쟁을 벌이는 등 제살깎기식의 고질적 병폐가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국제시장에서의 국가 이미지에도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와관련 정부가 일정부분 조정자 역할을 함으로써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의향은 없는지...

◆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분위기를 조성한다는것은 당초 산업자율화시책의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기업 스스로 민간주도와 자율화의 이면에는 기업의 책임이 뒤따른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권한만 알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실제로 과당경쟁, 불공정 관행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이문제에 대해 업계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자생력을 키워주는 선에서 깊은 관심을 보일 것입니다.

● 북한과의 화학제품 교역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계획은?

◆ 북한문제는 정치적인 사안으로 화학제품 교역 또한 남북대화의 분위기가 성숙되는 상황에 따라 진전될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남·북교역의 활성화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며, 이 문제는 정치·외교분야의 성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 최근 국제변화는 환경이 좌우하고 있다고 말할 정도로 환경문제의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국내 화학기업의 환경에 대한 인식은 위험수위에 오를 만큼 무방비상태라고 지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은...

◆ 상공자원부 차원에서는 환경문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UR이라고 생각합니다. 환경문제는 장기적 차원에서 깊이있게 논의되어야 할 정책과제이지 당장에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급한 성격은 아닙니다. UR에 따른 변화와 대응력제고가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 마지막으로 지난 4월1일자 폴리올레핀 생산기업들이 가공기업들에게 일방적으로 폴리머 가격인상을 통보하고, 상공부에 가격 인상방안을 건의했으나 상공장관은 사장단을 불러 인상방침을 철회토록 요구하는 등 산업계 뜻과는 전혀 다르게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행정조치를 비롯한 몇가지 방안이 있다면...

◆ 부임한 지 얼마되지 않아 뚜렷한 정책방향을 결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상당한 시일이 흐른 후에야 정책적 이슈가 제기될 것으로 봅니다. 경제기획원의 물가에 대한 부담도 있기 때문에 현실화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담합으로 보는지 아니면 국제가 연동에 따른 자구적 노력으로 보는지 상공자원부의 입장은?

그리고 그 판단의 기준은?

◆ 현재로선 답변드릴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력

- 1970. 2. 상공부 광무국 (행시 7회)
- 78 특허청 국제 법무관
- 79 대통령 비서실
- 85 UNCTAD 근무
- 88 국제 협력관
- 89 감사관, 산업조사관
- 91.7주 영국 대사관 상무관
- 93.4.3 상공자원부 섬유화학국장